

투데이 칼럼

‘보는 관광’에서 ‘사는 정읍으로’... 해법은 T자형 압축도시

2026년 현재, 정읍의 풍경은 방업하다. 저출생, 청년 인구 유출,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는 숫자보다 먼저 도심에서 감지된다. 시내 곳곳에 걸린 ‘일대’ 현수막, 불꺼진 상가와 적막한 골목은 도시 활력의 급격한 쇠퇴를 말해준다.

노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33%에 달하는 정읍은 이미 초고령 사회의 한복판에 들어섰고, 문제의 본질은 인구 감소 그 자체보다 도시 기능이 빠져나가는 ‘도심 공동화’에 있다.

그동안 우리는 발전을 외곽 확장으로 이해해 왔다. 도심은 넓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외곽에 대규모 시설을 짓는 방식이 성장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둡다. 가을 한철 반짝이는 내장산 단풍과 구월초 공원은 나머지 열한 달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역시 상징성을 살리지 못한 채 시민들의 일상과 유리되어 있다.

단순히 한 번 와서 훑어보고 떠나는 ‘보는 관광’에 머물러 있는 사이, 오늘날 관광객들이 원하는 ‘체험하고 머물고 맛보는’ 융복합 콘텐츠의 부재는 지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정읍은 ‘도시의 양적 팽창’이라는 해묵은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심 확장은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사회적 인프라 유지비용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과감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홀



정 상 섭
전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어진 기능을 도심으로 모으는 ‘압축과 회귀’, 즉 ‘도심 중심의 질적 재편’이다.

이를 공간 전략으로 구체화한 것이 ‘T자형 압축도시’다. 정읍천을 축으로 내장산등에서 연지동을 잇는 동서축, 성황산에서 수성동으로 이어지는 남북축을 연결한 T자 구간에 행정·문화·관광·생활기능을 집중시키는 전략이다.

선택과 집중 없이는 생존도 어렵다. 이를 가능케 하는 공공 시설부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읍사이크로웨이힐, 정읍경찰서, 정읍우체국 등의 유핵부지는 도심 활력을 되살릴 ‘심폐소생기’가 되어야 한다.

이곳에 그동안 도시생존에 필수적 기능을 해왔지만 수익성 악화로 사라지는 민간 시설들의 역할을 행정이나 공공이 대신해야 도시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외곽에 흩어진 문화 시설을 끌어들이고 숙박, 회의장, 음식점, 피로연, 공연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진 문화복지시설로 재구성해 도시의 필수 기능을 지켜내는 것이 절실하다. 그것이 바로 압축 도시(Compact City) 전략이다. 도시 재생의 핵심은 텅 빈

구도심을 다시 사람이 찾고 머무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읍 시내와 인접한 성황산, 초산, 이양산, 죽림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산을 도심 활성화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이양산에 ‘치유의 숲’이나 ‘천환경복조 전망대’ 조성은 고무적인 시작이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산들을 연결하는 도심 산책로와 각 산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시설을 갖춰 구도심을 자연과 역사를 채운 자족형 문화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담양의 죽녹원과 고창의 모양성이 성공한 이유는 원도심 반경 500m 이내에 핵심 랜드마크가 집중되어 관광객이 걷고, 먹고, 돈을 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읍 역시 죽림산의 대나무 자원이나 초산성지 같은 역사적 자원을 개발해 시내 상권과 연결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산에서 내려와 바로 구도심 맛집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동선 설계가 필수적이다.

정읍은 호남선 KTX의 핵심 정차역이자 전북 서남권(고창, 부안, 순

창 등)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다. 이 강력한 접근성을 활용해 정읍역 주변을 단순한 환승 거점이 아닌 ‘서남권 비즈니스·문화 플랫폼’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현대적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일감형 콘텐츠’로 재해석해야 한다.

기념관을 단순히 유물을 보는 곳이 아닌 전국 학생들이 찾아오는 역사 교육의 성지로 만들 때, 정읍의 역사적 자산을 비로소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우리는 도심 속 학교 폐교와 공공기관 추가 감축이라는 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할 것이다. 외곽 확산형 도시계획은 지자체의 소멸을 앞당길 뿐이다.

정읍은 이제 ‘작지만 단단한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지역 소멸을 막는 길은 도시 공간 구조를 콤팩트하게 재편하여 인프라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절감된 예산을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문화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정읍만의 정체성이 담긴 자연과 역사를 구도심의 일상 속에 녹여내 관광객의 지출이 도심 골목 상권으로 직접 흘러 들어갈 때 정읍은 자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정읍의 미래는 외곽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도심의 ‘T자형 축’ 위에 있다.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분산’의 환상을 버리고 ‘수렴’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공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격언은 이제 정읍의 공간 전략에 그대로 적용된다.

사설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학생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이른바 수포자라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40%가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 중, 고 학생의 30.8%가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 18%, 중학교 3학년 33%, 고등학교 2학년은 40%에 이른다. 이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학생과 교사 6,600여 명을 상대로 수학교육 실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학교급에서 포기하고 싶다는 비율이 늘었고 중학교 3학년은 10%포인트 증가했다.

초중고 학생의 81%는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등학생은 열 명 중 아홉 명이 스트레스를 호소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 학생들은 수학 문제의 높은 난도를, 교사들은 ‘누적된 학습 결손’을 지목했다. 또 응답 교사의 60%는 학교 수업 이해를 위해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학생 10명 중 6명은 수학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의 85%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 중 30%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

조사 단체는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종교의 자유는 모든 신앙인의 보편적 권리로 존중 받아야 하고, 종교가 사회적 선을 확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결의하는 ‘종교평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전북종교인연회는 최근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소재 전북UPF 세미나실에서 종교지도자와 각계 지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독교·불교·유교·원불교·천도교 등 다양한 종단 지도자와 시민, 학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종교의 자유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불일 단능주의와 도덕적 혼란이 깊어지는 시대일수록 종교의 본질적 사명이 중요하다. 참석자들은 생명존중·정의·봉사·연대 등

종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종교는 서로를 비추고 돕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종교가 공동체의 도덕적 나침반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종교 부처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를 돌봐야 하고, 종교 교육을 통해 사랑과 자비, 용서와 나눔이라는 사회적 통합과 화해를 위한 실천적 덕목을 가르쳐야 한다.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포럼을 통해 전북사회에 종단 간의 교류와 대화가 더욱 활발해지고, 나아가 약자와의 동행이 활성화되어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포럼을 통해 이웃 종교 간의 대화의 장을 넓히고,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동선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바란다는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수상 퍼레이드 참가자들의 올림픽 메달 포즈



지난 1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베네치아 카니발 수상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올림픽 메달을 깨우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재개방’ 라파 검문소 통해 가자지구 돌아온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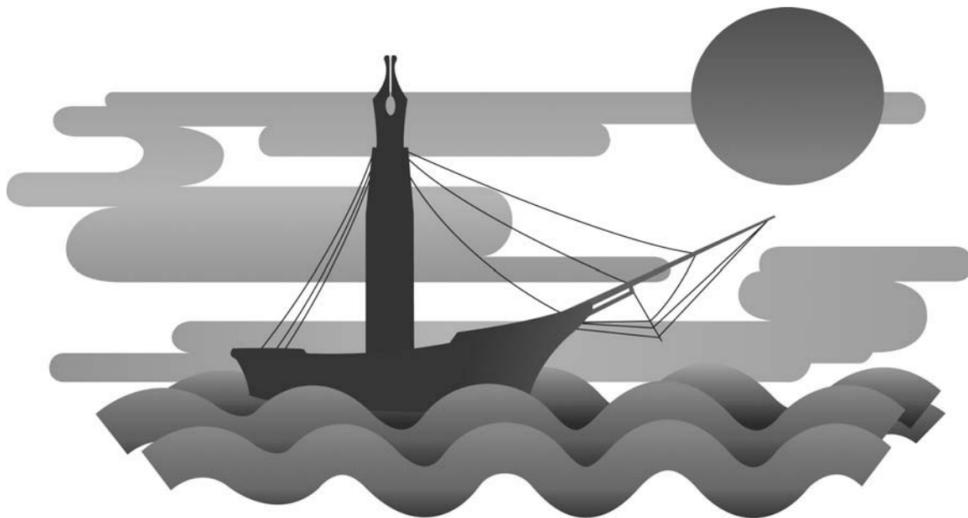
3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 국경검문소를 통해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돌아온 팔레스타인 환자 등이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내·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